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국 비즈니스 활동 4개월째 연속 둔화, 주문도 줄어
- CNN Business: 미 기업 내 경제 분석가들, “경기 침체 가능성 50% 넘어”
- WSJ: 미국 등 고금리 정책 효과 보려면 오래 걸려

[미국 금융]

- CNN Business: 테슬라, 주가 4% 하락... 중국 시장 가격 인하 발표

[글로벌 경제]

- Bloomberg: 천정부지 생활비로 70년대식 쇼핑 습관으로 회귀
- Bloomberg: 9월 중국의 주요 선진국 수출 하락. 러시아와는 상승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뉴스: 美정부, 미국 투자 외국기업이 국가안보 합의 위반시 제재
- 연합뉴스: 美 3분기 GDP, 상반기 감소 딛고 회복 전망... "체감경기는 글썽"
- 한경: 중국 3분기 GDP 성장 3.9%...연간 목표치 달성 어두워

[비즈니스와 업계 동향]

- WSJ: 미 운송 비용 상승... 기업들의 창의적인 대응 필요
- WSJ: “사무실 격일제로 공유한다”... 사무실 대여료를 절약하는 기업들
- WSJ: 갑작스런 ‘백오더’ 반응, 소비자는 주문 줄인다
- WSJ: Philips, 4천명 해고... 대규모 리콜과 공급 타격 탓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Business Activity Contracts for Fourth Month, Orders Shrink

미국 비즈니스 활동 4개월째 연속 둔화, 주문도 줄어

- 인플레이와 경기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 비즈니스 활동은 이달 10월까지 연속 4개월간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 10월 S&P Global 합성 구매 관리자 생산 지수(Purchasing managers output index)는 2.2% 하락한 47.3을 기록했다고 오늘 월요일 발표됐다. 50 미만은 위축을 말한다.
- 제조 PMI 지수도 49.9로, 서비스 관련 지수도 46.6으로 줄었다.

Bloomberg 기사

CNN Business: Corporate economists say recession odds are greater than 50-50

미 기업 내 경제 분석가들, “경기 침체 가능성 50% 넘어”

- 기업 내 이코노미스트들의 3분의 2는 미국이 이미 침체에 들어섰거나 향후 12개월 내 침체에 접어들 것이라고 3분기 경제 상황을 조사한 National Association for Business Economics는 밝혔다.
- 구체적으로 50% 이상의 응답자들은 내년 내에 침체 가능성을, 또 다른 11%는 이미 경기 침체라고 답했다. 10월 초에 55명의 회원사 기업(기업 내에) 이코노미스트를 상대로 조사한 것이다.
- 이들은 또한 판매 성장세 둔화, 임금 상승, 자본 지출이 떨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CNN Business 기사

WSJ: Higher Interest Rates Can Take a Long Time to Bring Down Inflation 미국 등 고금리 정책 효과 보려면 오래 걸려

- 현재 미국 등 세계 각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긴축 금융정책이 지나친 것인지 미미한 것인지 알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 물론 금리 인상이 저축과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에 영향을 주지만 특히 용자계약이 바뀌어 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연된다.
- 높은 대출 비용과 낮은 자산 가격 때문에 가계와 기업들은 용자와 투자에 소극적이게 된다. IMF의 이달 발표에 따르면 금리 변동이 성장에 영향을 주는 데는 1년 정도, 인플레이에 여파를 주는 데는 3년에서 4년이 걸린다는 것. 결국 금리 변동 폭이 심했는지 미약했는지를 파악하려면 수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 한편 미국은 올해 상반기 GDP 감소 이후 올해 7월부터의 3분기는 연간 3% 상승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유럽도 고비용 에너지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보일 것으로 JP 모건은 전망했다.

WSJ 기사

[미국 금융]

CNN Business: Tesla's stock sinks after cutting prices on cars in China 테슬라, 주가 4% 하락... 중국 시장 가격 인하 발표

- 이번 주 월요일 테슬라가 중국에서 모델 3와 모델 Y의 출고가를 9% 인하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테슬라의 미국 시장 주가는 4% 가까이 떨어졌다.
- 이번 가격 인하는 지난주 테슬라 CEO Elon Musk가 중국과 유럽의 경기 불황으로 인해 테슬라가 올해 차량 판매 목표에 미달할 것이라고 밝힌 데에 따른 것이다.

- CMBI는 이로 인해 중국 내 전기차 업체들의 경쟁 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며, 2023년에는 판매 증가율이 50% 아래로 떨어져 업계 전반의 판매가 둔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2023년 생산능력이 높아지며 다른 자동차 기업들 역시 테슬라를 따라 EV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가격을 낮춰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CNN Business 기사

[글로벌 경제]

Bloomberg: Soaring Cost-Of-Living Crisis Brings Back 1970s Shopping Habits

천정부지 생활비로 70년대식 쇼핑 습관으로 회귀

- 유럽 소비자들의 거의 4분의 3이 식품 등 일상품을 줄이고 있다. 생활비 비용 부담이 더 버거워지기 때문이다.
- 유럽 6개 국가의 소비자 중 71%가 소비를 크게 줄이고 있다고 답했다.
- 데이터 분석과 마켓 리서치 회사인 IRI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 58%가 이미 필수품 구입을 줄였고 35%는 저축도 줄고 각종 공과금 지불을 위해 용자를 얻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IRI 관계자는 높은 투입 비용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 때문에 급격한 추가 물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당분간 물가 하락은 가능치 않아 소매업자들과 소비자들은 이에 계속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

Bloomberg 기사

Bloomberg: China's Exports to Major Markets Slump, Russian Trade Strong

9월 중국의 주요 선진국 수출 하락. 러시아와는 상승

- 글로벌 수요가 하락하는 징후인지 중국의 9월 주요국 즉,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수출이 감소했다.
- 미국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의 자료에 따르면 9월 미국에 대한 수출 규모는 작년 동월에 비해 11.6%로 올해 8월의 연율 3.8%보다 더 빨리 하락했다.
- 독일과 프랑스에 대한 수출도 각각 5.6%, 7.6% 하락했고 영국에 대해서도 11.8% 감소했다.
- 이는 글로벌 수요 감소와 경지 침체 우려가 미국과 유럽에 확산되며 무역 규모가 중국 경제 성장의 바로미터가 되는 상황에서 지난 수개월간 급속도로 힘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반면 러시아에 대한 수출은 지난 3개월간 각각 두자리 숫자로 상승해 9월에는 21.2% 증가했다. Singapore, Malaysia, India, Italy로의 수출도 늘었

다.

Bloomberg 기사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 美정부, 미국 투자 외국기업이 국가안보 합의 위반시 제재
- **연합**: 美 3분기 GDP, 상반기 감소 딛고 회복 전망..."체감경기는 글썽"
- **한경**: 중국 3분기 GDP 성장 3.9%...연간 목표치 달성 어두워

[비즈니스와 업계동향]**WSJ: Rising Shipping Costs Prompt Businesses to Get Creative With Deliveries****미 운송 비용 상승... 기업들의 창의적인 대응 필요**

- FedEx와 UPS 등 미국 운송 업체들이 10월부터 1월까지 1년 중 배송이 가장 바쁜 시기를 앞두고 서비스 가격 인상을 계속하고 있다.
- 지난달 FedEx와 UPS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부분의 서비스에 걸쳐 평균 6.9%의 배송료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게다가 연방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유 가격은 6월의 최고치보다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작년 말보다 갤런당 47% 높은 수준이다.
- 이에 기업들은 각자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높은 운송 비용에 대처하고 있다. 배송비를 줄이기 위해 직접 배달용 차량을 구입하여 배송에 나서거나 고객들에게 배송에 더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요청하고, 판매 홍보하는 상품을 덜 무거운 것으로 바꾸는 판매 방식 등을 사용하고 있다.

WSJ 기사

WSJ: Timeshare Comes to the Office: Companies Save Money on Space by Alternating Days**“사무실 격일제로 공유한다”... 사무실 대여료를 절약하는 기업들**

- 팬데믹 이후 기업들은 점차 직원들이 집과 사무실에서 하이브리드로 일하도록 하면서도, 협업을 유도하도록 일주일에 적어도 며칠은 사무실에 있기를 바란다. 따라서 요일에 따라 사무실이 꽉 차기도 하고 비어 있기도 한 것이다.
- 사무실의 ‘타임쉐어’ 임대는 기업이 직원들이 사무실에 오는 날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부분의 업무를 노트북으로 수행하고 서버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기업과 스타트업이 그 대상이다.
- 사용자들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자리를 깨끗이 치우고 민감한 자료를 두지 않으며, 기업은 보통의 사무실 임대료에서 절반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

WSJ 기사

WSJ: How Consumers React When They Buy an Item on Back-Order 갑작스런 '백오더' 반응, 소비자는 주문 줄인다

- 미국의 한 의류업체는 이월주문, 즉 소비자가 주문을 할 당시 판매자가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제조사에 재주문을 해야 하는 상황인 '백오더'가 갑작스럽게 닥쳤을 때 소비자가 보이는 반응을 연구했다.
- 연구에 따르면 고객이 백오더로 물건을 사게 되었을 때, 백오더를 하지 않은 고객에 비해 향후 12개월 동안 2.1% 더 적게 주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소매업자는 연간 약 2천 5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는 것으로 추정된다. 백오더로 인한 배송 지연이 10일 이상일 경우 향후 1년간 주문량은 6.1%, 4년간 누적 주문량은 4.6% 줄었다.
- 이 연구는 기업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고객에게 더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지연에 대한 보상으로 향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WSJ 기사

WSJ: Philips to Cut 4,000 Jobs as Big Recall, Supply Snags Hit Earnings Philips, 4천명 해고... 대규모 리콜과 공급 타격 탓

- 네덜란드 의료 대기업인 Philips는 최근 수면 무호흡증 치료에 사용되는 장치의 대규모 리콜과 공급망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며 4천명의 일자리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8만 명의 직원 중 약 5%에 달하는 규모이다.
- Philips는 호흡 보조 기계의 내부 부품에서 방출된 유해한 물질이 사용자의 폐로 들어갈 수 있다는 보고에 따라 작년 6월부터 5백 50만대의 기기를 리콜하는 중이다. Philips는 3분기 13억 유로의 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매출은 약 5% 감소한 43억 유로였다.
- 한편 Philips는 듀얼 소싱을 확대하는 등 공급망을 강화하고 연구 개발 전략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운영 및 공급 문제가 장기화되고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중국 내 코로나19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 역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WSJ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슈퍼위크 맞이하는 美 S&P500 기업들... 시장 전망은 다소 부정적

애플 메타 알파벳 등 빅테크 기업들 실적발표

**컨센서스 이미 보수적으로 잡혀 있어
실적 하회했을 때 주가 낙폭 더 커
여행 기업 실적은 기대 커**

미국 주식시장이 이번 주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대는 크지 않다. S&P500 해당 기업의 20%가량이 3분기 실적을 완료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강달러, 금리 인상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